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루카 12, 49-51)

〈구세주〉, 엘 그레코 작

[제1독서] ..... 예레미야서 38,4-6.8-10

[화답송] ..... 시편 40(39),2ㄱ.2ㄷ-3.4.18  
(© 14ㄴ)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
-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

[제2독서] ..... 히브리서 12,1-4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 루카 12,49-53

[성가 안내]

- 입당성가: [32] 언제나 주님과 함께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513] 면병과 포도주
- 성체성가: [167] 생명이신 천상 양식 [156] 한 말씀만 하소서
- 파견성가: [16] 온 세상아 주님을



##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평범 속에 비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꿈을 가꾸고 실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작은 것이고 일상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신앙인은 모래알 같은 작은 것에서도 천국의 비밀을 새기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기다림의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통상 종교는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누리는 것이 목표인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불화와 분열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 12,51)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넓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새겨 보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정적인 것이 아닌 동적인 것이며 안일무사가 아닌 모험이며 미래를 향한 투신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오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수의 평화로움을 보면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오래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로 모여드는 물줄기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요동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미래의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 순명하는 십자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게 좋다’식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겪었던 박해 받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아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했다고 해서 반대자들은 적에게 심리적으로 이롭게 한 죄를 물어 그에 대한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예언자는 밧줄에 묶여 저수 동굴에 물기 없는 진흙에 빠집니다. 다행히도 에벳 펠렉이 임금에게 청해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간신히 그의 목숨을 살립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위시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석사제와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반대를 받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자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도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하시며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루카 12,52)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모범으로 하며 성실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히브 12,1-2)

예수님의 삶을 보면 평화가 아니라 반대자들의 표적인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불을 지르러 오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I have come to set the earth on fire.”*

We, the faithful, are the people who have the hope for the heaven in our daily living. No matter how small it is, we keep the secret of the heaven and are patient to the end even with a very slight hope for the salvation.

Today, Jesus tells us serious words. He says he came to the earth to establish discord and division. “Do you think that I have come to establish peace on the earth? No, I tell you, but rather division.”

As a matter of fact, what Jesus tells us today is nothing new. He said, “The road to the salvation is not wide and flat, but narrow and rough.” Our faith is not something static but dynamic, and not something easy-going but an adventure and dedication for the future. We can find the meaning of today’s Gospel from Jesus’ death on the cross. Jesus followed the road of the cross to follow the Father’s way.

The road of the Lord was the road of persecution as many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had followed. Jeremiah was sentenced to death because he had prophesied the destruction of Israel. Luckily, he was rescued by Ebed-Melech just before being killed. All the prophets of Israel were threatened to death and were persecuted.

Jesus was opposed and persecuted by chief priests, scribes, and Pharisees. All other people who followed the way of the Lord also got persecuted. The Lord said that they would have difficulties not only from the opponents but also from close family members: “From now on a household of five will be divided, three against two and two against three.”

Paul the Apostle encourages us to live the faithful life following the Lord’s example: “Let us rid ourselves of every burden and sin that clings to us and persevere in running the race that lies before us while keeping our eyes fixed on Jesus, the leader and perfecter of faith.” Jesus’ life was not a life of peacefulness, but the life of the cross. We received the grace to be in the Kingdom through Jesus who came to set the fire of the Holy Spirit.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 하느님께 순종한 여인의 마지막은 영광

**티치아노**(Tiziano, 1488-1576년)는 베네치아의 르네상스를 이끈 화가다. 그는 1516년에 산타 마리아 데이 프라리 성당의 제단화를 의뢰받았다. 그는 2년여에 걸쳐 생기 넘치는 색과 빛으로 '성모 승천'을 그렸다. 결국 이 작품은 1518년 5월 19일에 제막되었고, 그는 베네치아 최고의 화가로 등극했다. 비평가 루도비코 돌체(Ludovico Dolce, 1508-1568)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 작품에는 미켈란젤로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이 있고, 라파엘로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으며, 자연의 진정한 색채가 있다."

야코부스 데 보라지네(Jacobus de Voragine, 1228-1298)가 쓴 '황금전설'에는 마리아의 마지막 지상생활이 기록되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치는 마음이 마리아의 흉중을 사로잡는다. 먼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생각 때문이다. 그 순간 마리아는 천사를 목격한다. 천사는 손에 들고 있던 종려나무가지를 마리아에게 건넨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한다. 제자들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사탄이 당신의 영혼에 근접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소망이 그것이었다. 그 소망대로 요한을 비롯하여 제자들이 구름을 타고 마리아의 집에 도착한다. 마리아는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몸과 영혼이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티치아노는 그 광경을 관례적 표현방식으로 그렸다. 아래에는 열린 무덤과 제자들이 있고, 중앙에는 떠오르는 성모 마리아가 있으며, 위에는 열린 하늘이 있어 모든 천사들과 하느님이 계신다. 그러나 금색과 붉은색으로 그린 충만한 화면은 티치아노만이 그릴 수 있는 색채의 향연이다. 바로 이 화려한 색채를 통해 그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성모 마리아는 화려하고 밝은 금빛에 둘러싸여 승천한다. 크게 펼친 두 팔과 상기된 얼굴 표정은 승천의 기쁨을 대변한다. 특히 성모의 베일과 웃은 아름다운 울동미를 보이며, 상승하는 순간의 역동성을 실감나게 해준다. 그분은 가난한 마음을 상징하는 청록색 베일과 하느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고 하늘로 오른다. 가난한 마음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결합할 때, 천국 문이 열림을 말해주듯이.

아기 천사들은 성모 마리아의 승천을 도우면서 축복의 노래를 부른다. 이런 축복 속에서 그녀는 하느님을 향해 숭배의 몸짓으로 팔을 벌린다. 마리아의 얼굴은 천상을 상징하는 원형의 중심에 있다. 천상에서는 하느님께서 두 팔을 벌려 마리아를 받아들인다. 그분은 사랑스런 눈빛으로 마리아를 응시하신다. 천상은 모두 금빛 광휘에 싸여 있다. 금빛은 하느님의 영광을 더욱 빛내고 있다. 하느님 곁에서 대천사가 하늘의 여왕이 되실 마리아를 위해 왕관을 준비한다. 하느님께 순종한 여인의 마지막이 영광인 것이 모든 이에게 위안이 된다.

그림 하단은 지상인데 열두 사도가 보인다. 이들의 몸짓은 성모 마리아를 우러르며, 그분을 따르겠다는 약속처럼 보인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성모



티치아노(Tiziano, 1488-1576년)

마리아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한다. 요한은 어머니와의 이별을 슬퍼하듯 옷깃을 여미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분을 바라본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토마스는 손가락으로 그분을 가리키며 승천을 확인한다. 어떤 사도는 두 팔을 크게 벌려 몸을 그분께로 향하고, 어떤 사도는 걸음을 벗어젖히며 마리아의 뒤를 따르려고 한다. 어떤 사도는 가슴에 두 손을 모으며 승천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떤 사도는 자기를 위해 빌어달라며 그분을 향해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이것으로 제자들도 천국을 그리며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 그림은 기쁨과 환희에 찬 순간을 화려한 색채로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고요하고 차분한 명상적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천국을 그리는 사람들처럼.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 바오로회 캠핑

30대 신자 모임인 바오로회는 지난 5일(금)부터 7일(일)까지 2박 3일간 버지니아 루이자 카운티에 있는 스몰 카운티 캠핑 그라운드(Small Country Camping Ground)에서 가족 캠프를 가졌다. 이번 캠프에는 총 8가정이 참석하여 가족애와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고,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체험했다. 성원경(대건 안드레아) 보좌 신부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바오로회 김윤식(블라시오) 형제는 “아이들이 어려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다양한 야외 활동(Jumping pillow, 낚시, 물놀이, camp fire, 산책, 곤충 및 개구리 채집 등)을 즐기며 지낸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되는 큰 추억이 되었다”고 전했다.

## 8월 구역 임원 교육 실시

8월 구역 임원 교육이 지난 7일(일) 오전 10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었다. 구역회장을 비롯하여 봉사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경원(마르띠노) 구역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말씀 나누기(루카 12, 49-53)에 이어 정인준(파트리치오) 주임 신부의 현안 설명, 장터 및 구역 활성화를 위한 설문 조사, 본당 창설 3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인 성서퀴즈대회, 예비자 수호천사와 소공동체 참석 인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상 한국학교

# 여름학기 종업식 및 학예회

하상 한국학교(교장 정인준 신부) 여름학기 종업식 및 학예회가 지난 5일(금) 하상관에서 열렸다.

이날 종업식에서는 총 245명의 학생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으며, 82명의 개근상, 26명의 우수상, 13명의 최우수상, 13명의 시 낭송/구연 동화상도 수여됐다. 아울러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50 장학증서,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30 장학증서, 시 낭송 수상자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됐다.

종업식 후에 열린 학예회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닦은 실력을 맘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2016-2017학년도 정규학기는 9월 10일(토) 오전 9시에 개강한다.



사물놀이



꼭두각시춤



부채춤



소고춤



라면송



세종대왕님 도와주세요



# 2016 CYO Summer Camp

Last weekend, CYO had their annual summer camp at Makemie Woods.

The group was definitely a lot smaller than usual, but it was a great time nonetheless. When the students arrived on Thursday, we stayed indoors playing icebreakers and getting to know our teams/counselors. Then Friday we had our tradition of dodge ball and tug-of-war outdoors along with some other station games then in the evening we created music videos to perform in front of our peers.

Saturday was a big day for us as we spent a good chunk of time outdoors and the parents and priests came to visit and bless us with their delicious cooking after we took Mass with Father Seong. Later in the evening, we had a talent show where a lot of students danced and sang and performed what other odd talents they have!

Overall, the kids really seemed to enjoy their time at camp and I know the staff did for sure. Until next year!

– **Allison Park**, Camp Counselor



##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Date : August 15 | Type of Feast : Solemnity (Holy day of obligation)



The Assumption of Virgin Mary became a feast day celebrated by the Church every year on August 15. What it brings to mind is the height to which the Church has elevated this special woman. The teaching that, at the end of her earthly course, Mary was assumed into heavenly glory, body and soul, was dogmatically defined by Pius XII on November 1, 1950 in *Munificentissimus Deus*. More than 500,000 people were packed into Saint Peter's Square that day.

Mary's passage into Heaven is called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Assumptio Beatae Mariae Virginis*). The Assumption of Mary has two purposes. The first is that we celebrate the happy departure of Mary from this physical life on Earth. The second purpose is the assumption of her body into Heaven. We firmly believe that from the first moment of her

conception Mary was free of all sin, including Original Sin, by a special favor of almighty God. The Archangel Gabriel recognized her as **"full of grace," "blessed among women"** and **"one with the Lord."**

Finally when she was 59 years old, Mary died A.D. 48. She had enough time to say goodbye to all the apostles before she died. The grieving apostles took her body to a tomb near the one that Jesus was laid in. They covered her with a white shroud and laid her to rest in the tomb. But Mary's body didn't stay there. Jesus came to her and took her body and soul into heaven to be with Him.

We do not know for sure the place or circumstances of the death of Virgin Mary. One tradition attests that she died in Jerusalem. Another tradition points to the city of Ephesus, where she is said to have lived for a short time prior to her death. The bible does not inform us about the circumstances of the death of the mother of Jesus. The stories about it took shape in the first centuries after her death and focussed on three events: her deathbed (Dormition), her body being carried to heaven by angels.

### 1 2016-2017 SPC Sunday School Registration

- Periods : August 14, 21, 28 & September 4
- Location : Hasang Lobby
- Time : 9:00am-1:00pm
- Registration Fees :
  - 1 child \$80,
  - 2 children /per family \$150 ,
  - 3 or more children /per family \$200

### 2 Sunday School seek catechists & assistants for the 2016-2017 school year.

-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or email at [spc15.re.admyc@gmail.com](mailto:spc15.re.admyc@gmail.com) for more information.

**1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 일시: 8월 15일(월) 오후 8시
- 8월 15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 단체장 회의**

- 일시: 8월 14일(일) 오전 11:40 (B-3,4)

**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8월 14일(일) 오후 1시 (B-3,4)

**4 복사단 모임**

- 일시: 8월 14일(일) 오후 12:40 (B-1,2)

**5 동중부 한인 성소 컨퍼런스**

- 성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보다 깊은 신앙을 갖기 위해 한인 성직자와 수도자를 모시고 한국어와 영어로 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8월 20일(토) 오전 10:30 - 오후 4시
- 장소: 성 정 바오로 성당 분당, 친교실
- 문의: 최재필 (703)589-6580

**Korean American Vocation Conference**

- Join us for workshop in Korean and English, with Korean American clergy and religious, to explore and deepen our Catholic faith through vocational awareness.
- when : August 20, 2016 Sat. (10:30- 16:00)
- where :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 contact : Choi, Jeffery (703)589-6580

**6 하상회**

- 일시: 8월 21일(일) 오전 11:30 (B-3,4)

**7 안나회**

- 일시: 8월 21일(일) 오전 11:30 (A-1,2,3,4)

**8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8월 21일(일) 오전 11:40 (하상관 B- 4, 5)

**9 K of C 피정**

- 일시: 8월 21일(일) 오후 1시(성당)
- 주제: 봉사하는 삶 • 강의: 정인준 신부님
- 회원이 아닌 일반 신자분들도 환영합니다.

**10 베드로회 정기모임**

- 일시: 8월 21일(일) 오후 1시(B-1,2)

**11 Quo Vadis (성소후원회) 모임**

- 일시: 8월 21일(일) 오후 1시(B-3,4)

**12 바오로회 정기 모임**

- 일시: 8월 21일(일) 오후 4시(친교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8월 14일(일)	연중 제20주일	단체장회의(11:40, B-3,4), 꼬미시움월례회의(13:00, B-3,4), 복사단모임(13:00, B-1,2), 바오로 수도회 성소후원회 모임(11:00, A-1,2,3)
8월 15일(월)	성모 승천 대축일	아침 미사(6:00, 성당),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20:00, 성당)
16일(화)	연중 제20주간 화요일	레지오 마리애(20:00, 친교실), 성령기도회(20:00, 친교실), CLC 피정(20:00), 예비자 교리(20:00)
17일(수)	연중 제20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애(9:30, 친교실)
18일(목)	연중 제20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19일(금)	연중 제20주간 금요일	CLC(20:00), 재속프란치스코회(20:00), 사도임원회(20:00)
20일(토)	성 베르나르도 아박사 학자 기념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애 (9:30, 친교실), 동중부 한인 성소컨퍼런스(10:30-16:00, 성당, 친교실)
21일(일)	연중 제21주일	하상회(11:30, B-3,4), 안나회(11:30, A-1,2,3,4), K of C 피정(13:00, 성당), 꾸리아월례회의(11:40, 하상관 B-4,5), Quo Vadis 성소후원회(13:00, B-3,4), 베드로회(13:00, B-1,2)

**13 2016 - 2017년도 주일학교 등록**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을 받고 있으니 학부모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 9월 4일까지
- 등록비: 한 자녀 \$80/ 두 자녀 \$150/ 세 자녀 \$200
- 신청: 하상관 주일학교 교무실 오전 10시 미사 전후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 371-3589

**14 2016 - 2017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 입학 대상: 유치부 - 12학년
- 학사 일정: 2016년 9월 10일 - 2017년 5월 13일
- 등록접수: 친교실(오전 8시, 10시 미사 후) 9월 4일까지
- 우편 접수: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 학비: 등록비 포함, 첫째 자녀: \$490, 둘째 자녀: \$450 셋째 자녀: \$400
- 문의: 육옥영 교감(703)598-5540

**15 2016 - 2017년 하상한국학교 교사 및 자원 봉사자 모집**

- 관심 있는 분은 8월 21일까지 교사 지원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 봉사자에게는 봉사 시간에 따라 대통령 봉사상 메달이 수여됩니다.

**16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주일학교에서는 교리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교우분들은 성당 사무실이나 주일학교 교무실로 연락주시시오.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 371-3589/ 성당 사무실(703)968-3010

**17 2016년 하상성인학교 가을학기 안내**

- 교육 기간: 2016년 9월 6일 - 2016년 12월 4일
- 등록: 2016년 8월 21일, 28일, 9월 4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오전 9시-12시), 친교실
- 수강 과목: 컴퓨터기초, 컴퓨터중급(인터넷, 워드), 컴퓨터고급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아이폰, 아이패드, 동양화반(초급, 중급), 미술(탄생, 수채화, 아크릴), 시민권준비반, 문예창작교실(시), 생활영어, 수지요법(초급, 중급), 손뜨개교실, 한의학 건강상식, 생활교실, 합창교실, 한국무용, 장구반(초급, 중급), 기타 교실(초급, 중급), 스트래칭 요가, 라인댄스
- 개강일: 2016년 9월 6일(화), 오전 9:20
- 대상: 전 신자와 일반인 20세 이상
- 등록금: \$50 (점심 제공)
- 문의: 김명희(울리어나)703-217-2775

**18 2017년 본당 달력 광고 접수**

- 2017년 본당 달력에 실릴 광고를 접수하고 있으니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가격 \$600)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8월 18일 (목) 오후 9시~11시**

- **가톨릭 소식**: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인터뷰 - 아, 사람**: 평화방송 신상수기 공모 당선 김하정 울리어나 2편,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켈트와 시 쓰기,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사는 눈물 겨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 **생명 그리고 사랑**: 당신 결의수호천사성마모로 병원의 가정간호
- **명불허전**: <명불허전> 손우배 신부 - 예수 성심을 찾는 여정



**여름 휴가 중 가까운 성당 및 미사 시간 찾기**

인터넷에서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http://www.masstimes.org)



우리 본당에 파견되시는 성가정 작은 자매회 이 스틸라 수녀님과 정 아가타 수녀님을 환영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8월 7일 (연중 제19주일)

주일헌금	.....	\$ 7,547.00
교무금	.....	\$ 17,635.00
교무금(신용카드)	.....	\$ 2,240.00
특별헌금	.....	\$ 150.00
2차 헌금	.....	\$ 0.00
합계	.....	<b>\$ 27,572.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전례 및 청소 담당**

8월 14일	.....	웨이팩스 3-3,4
8월 21일	.....	라우든1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국(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창덕(비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벽참(프란치스코), 임현석(아비또), 손범기(펠릭스),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장동진(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진(앤토니), 심용천(요한), 전성호(세례자 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헬(미카엘라), 이솔(루시아), 에스터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Pohanka Acura</b>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b>허진 변호사</b>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주택용자, 채용자</b>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안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보험/은퇴연금</b>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b>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스카이 학원</b>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가을학기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Susan Interior</b> 커튼, 블라인드 김수산나 703-981-4296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용업 (요한) 703-451-3322	<b>케어피플 &amp; 호스피스</b>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F teck connection, LLC</b>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마태오 흥 종합보험</b>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b>신디 리 부동산</b> 텔리 전문 사업체 이 루시아 703-338-0008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찬들리 HYUNDAI</b>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b>Kitchen, Deck Sunroom</b> 혜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b>Penta Olympic Fencing Club</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b>ASSA 종합보험</b>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b>5분 도정</b>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b>임경옥 부동산</b>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b>Golf Lesson</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손 678-800-3451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에스터'S 키친</b>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Landscape</b>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b>김주현 회계사, 세법학 석사</b> Julie J. Kim CPA, MST 회계, 세무, 감사 jkim@juliekimcpa.com 703-462-9924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정인준 (파트리치오)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